

## 2019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 8일간의 묵상과 기도

### 제1일 (18일)

####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 5:24)

아모 5:22-25

루가 11:37-44

#### 묵상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기도와 예배에 온전히 전념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기울이는 관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같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자연을 착취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실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편 다른 믿음을 지닌 이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 드리는 참다운 예배의 외적 징표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임을 일깨우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십니다.

아모스 예언서에서, 하느님께서서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아모 5:24)하기 전까지는 정의를 무시하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예배와 정의의 실천은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자 함께 일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더욱더 일치될 이루며 서로 더욱 일치하게 됩니다

#### 기도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의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정의의 길을 보여 주셨나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정의를 실천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어디서건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활동으로 많은 이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2일 (19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마태 5:37)

에페 4:22-25

마태 5:33-37

## 묵상

같은 인간을 향한 폭력은 신체적 폭행이나 강탈뿐 아니라 험담이나 악의적 소문에서도 발견됩니다. 소셜미디어는 거짓이 수많은 청중에게 즉시 손쉽게 유포되게 조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단체를 비롯한 종교 집단들에서 다른 종교 집단에 반대하여 유포하는 거짓말과 편견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은 사람들이 진리의 옹호를 위해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는 불공평하고 거짓된 말들 앞에서 침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짓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들을 포함하여 단체들 사이에 우호 관계를 파괴합니다. 불의는 교회의 일치를 깨뜨립니다.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정직하고 책임 있게 대하라는 부름입니다. 서로 정직하고 책임 있게 대할 때, 악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 기도

의로우신 하느님,

옳고 그름을 구별하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정직이 저희 마음을 이끌고 저희 입술이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다른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저희가 거짓을 퍼뜨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일치와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 제3일 (20일)

###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시편 145:8)

시편 145:8-13

마태 1:1-17

#### 묵상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며, 하느님 사랑은 민족과 문화와 인종 그리고 종교의 장벽까지도 뛰어넘는다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폭넓은 전망을 반영합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 또는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반면에,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여성 네 명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중 룻과 라합, 이 두 명은 이 민족이었습니다. 간음을 한 다윗 왕을 비롯하여 족보에 있는 예수님의 다른 조상 세 명은 그들의 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인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만드신 것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 죄인과 의인 모두를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 계획에 포함하신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과 서로 다른 1,340여 민족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들도 흔히 민족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타성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만이 진리의 유일한 소유자라고 여기며 그 결과 교회의 일치를 훼손하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종적 종교적 광신주의가 고조되고 불관용의 정신이 커져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저자와 함께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면서, 모든 이를 끌어안는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데에 동참함으로써 인류 가족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느님,  
모든 피조물 안에서 드러나는 크나큰 하느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차별받는 모든 이를 받아들이도록 저희에게 열린 마음을 주소서.  
편견과 불의를 넘어 사랑을 키워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이가 지닌 고유성을 존중하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 제4일 (21일)

###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히브 13:5)

히브 13:1-5

마태 6:25-34

## 목상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저자는 돈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시류 앞에서 이 성경 구절은 하느님의 섭리를 일깨우며 하느님께서 결코 피조물을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풍요로운 땅과 강과 바다를 통해 선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지탱할 풍부한 식량과 깨끗한 물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초 필수품 부족에 시달립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탐욕은 종종 부패, 불의, 빈곤, 기아로 이어집니다. 다른 이를 돌보고 우리의 재화를 나누는 대신에 우리 자신, 또는 자국이나 자민족을 위해 돈과 식량과 천연 자원을 모으고 축적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물질이 우리 주요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실 것임을 믿으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 가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의 일부 교회들은 작은 시골 교회들에 다양한 재정적 인도적 교육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소박하고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그들은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벌거나 미래를 위해 자원을 쌓아 놓는 데에 몰두하지 않고 더욱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좀 더 공정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풍성히 내려 주신 하느님의 선물에 감사하나이다.

모든 축복을 검소하게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이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저희가 만족하는 가운데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일치를 모든 이가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5일 (22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루가 4:18)

아모 8:4-8

루가 4:16-21

## 묵상

아모스 예언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가난한 이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장사꾼들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아모스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악행을 그분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불의에 희생되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귀여겨들으시고, 부당하게 대접하고 착취하는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소외와 착취와 불의가 만연하는 세계화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는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간의 관계를 판가름 하는 요인이 됩니다. 경제 문제가 흔히 그들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정의가 부재 한다면 평화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세례에 힘입어,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에게 말과 행동 모두 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예언자적 사명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깨달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시어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그 말씀이 날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 하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 기도

하느님,

권력을 향한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억압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친교의 성령을 보내 주시어

저희가 이웃과 연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가난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하신

하느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제6일 (23일)

###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예레 10:16)

예레 10:12-16

마가 16:14-15

#### 묵상

창조된 세상은 하느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 줍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자연계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그 가용 범위를 넘어서 착취하고자 하는 탐욕에 빠져 왔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숲은 벌목되고 땅, 대기, 강, 바다가 오염으로 파괴되어, 농경이 불가능해지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으며 동물들이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모든 것을 새로워지게 하고자 하신 하느님의 계획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착취의 시류를 벗어나, 진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피조물과 화해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여러 각지에서 서로 다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펼치는 운동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친환경적인 교회들을 발전시키고 환경의 남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일치를 이루어 창조주 하느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상에 있는 우리 공동의 집을 지키는 데 동참 할 때에, 우리는 단지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느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기도

사랑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생겨났나이다.

하느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자애를 드러내는 온 세상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을 소중히 아끼며 걸어 나갈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모든 피조물에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제7일 (24일)

###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마태 15:28)

사무엘상 1:13-17

마태 15:21-28

#### 묵상

엘리는 한나의 깊고 절실한 기도를 오해하고 그 탄원을 술에 취한 헛소리라고 묵살하며 그녀를 나무랐다. 그러나 자신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달라는 한나의 대답에 엘리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복을 빌어주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딸을 낫게 해 달라고 청하였을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당신 백성만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다. 그러나 끈질기게 청하고 요구하는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인정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침내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처음에는 소외되고 관심을 기울일 가치도 없게 여겨지던 한 여인의 말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치유와 완성을 가져오는 선견지명이 있는 말임이 드러났다

여성의 목소리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무시와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서조차 흔히 우리는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에 휩쓸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여성과 어린이들을 강제 납치하여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 짓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인지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된다.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다른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흔히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빼앗긴다. 최근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인신매매와 아동 성폭력의 척결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취하였다.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 그 희생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에, 그들의 노력과 아울러 타 교인들의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성경 공부 안에서 일치하여 진실로 하느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도 사회에서 가장 학대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함께 듣는 바로 그때에 그 말씀에 감도되어 인신매매와 다른 악의 고통에 대항하는 공동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 기도

너그러우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인간 존엄의 원천이시나이다.

하느님의 은총과 권능으로 한나의 말이 사제 엘리의 마음을 바꾸었나이다.

주님의 자애와 권능으로 가나안 여인의 말이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 여인의 딸이 나왔나이다.

교회의 일치를 증언하고자 노력하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게 하시어 여성이 교회에 봉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8일 (25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시편 27:1)

시편 27:1-4

요한 8:12-20

## 목상

이번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의 8일 동안, 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곧 탐욕, 폭력, 배척, 착취, 빈곤, 환경오염, 기아, 인신매매 등에 대하여 날마다 목상하였다.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이러한 죄들의 일부가 자신들의 교회의 삶에 오점을 남기고 일치를 저해하며 세상을 향한 그들 증언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의 일치를 증언한 많은 고무적인 사례들도 알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여러 사례들을 들 수 있다.

나날이 해를 거듭할수록, 특히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공동의 기도를 바치며 공통된 세례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한다. 이렇게 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는 모든 일치의 원천이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이심을 깨닫게 된다. 세상의 수많은 불의가 자주 그들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행동에 옮긴다. 주님께서 그들의 빛이고 구원이며 그들 삶의 산성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 기도

저희의 버팀목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애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시련의 때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둠의 때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니 찬미하나이다.

저희 삶을 변화시키시어 저희가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며 당신의 친교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제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아멘.